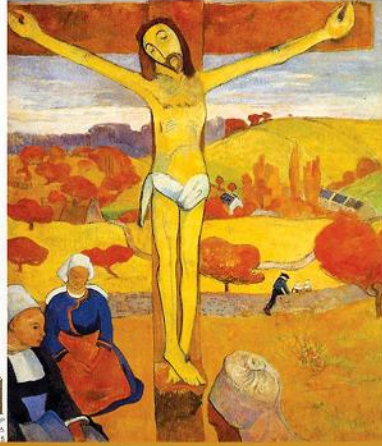


예수의 정치학

존 하워드 요더 | 신원하 · 권연경 著 | 신원하 역



“크리스차니티투데이” 선정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10선

“《예수의 정치학》은 위험한 책이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어제와 똑같을 리 없는 까닭이다.”
- 김두식 교수

ivp

존 하워드 요더의

예수의 정치학 출판기념 강연회

- *강연 _ 신원하 교수(고신대), 권연경 교수(안양대)
- *일시 _ 2007. 10. 8(월) 오후 7시~9시
- *장소 _ IVF 중앙회관 지하 ‘좋은땅’
- *주관 _ 기윤실 삶의정치·윤리운동본부
- *주최 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IVP, 청어람아카데미

목차 / 순서

예수의 정치학
출판기념
강연회

- 사 회 : 김 선 욱 교수(숭실대 철학과, 기윤실 삶의정치·윤리운동본부장)

◎ 강연 1(7:10-7:50)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의 십자가의 정치학과 메시아적 평화주의

신 원 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3

◎ 강연 2(7:50-8:30)

복음과 윤리

권 연 경 교수(안양대 신학과) 9

◎ 질의응답(8:30-9:00)

강연 1

예수의 정치학
출판기념
강연회

신원하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요더의 생애와 사상 해설)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의 십자가의 정치학과 메시아적 평화주의

요더의 생애와 신학적 영향

현존하는 미국 최고의 기독교 윤리학자요 신학자로 거론되는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20세기 미국 신학사를 되돌아보게 될 때, 존 하워드 요더의 신학은 단연히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은 요더가 기독교 윤리학의 주류 흐름과 방법론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독교 윤리학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서 다시 출발해야 함을 주장하고 그 근거를 학문적으로 개진했기 때문이다. 2000년 4월 미국의 크리스찬리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 잡지는 요더의 책 『예수의 정치학』을 20세기 미국 신학사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신학서 100권 가운데 5번째 책으로 선정한 바 있다.

1927년 미국의 북부 오하이오 주의 스미트빌에서 태어난 요더는 철저한 메노나이트 신앙을 가진 할아버지와 부모의 신앙가운데 자랐고, 그의 아버지는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목회사역을 담당했다. 메노나이트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를 간절히 바란 부모의 뜻을 따라 요더는 메노나이트 교단의 직영 학교인 고센 대학과 신학교를 다녔다. 졸업 후 요더는 유럽으로 건너가 메노나이트 구호 기관에서 사역을 하다가 스위스의 바젤 대학교에서 메노나이트 역사와 신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65년부터 인디애나 주에 있는 고센 신학교에서 전임교수 사역을 시작한 요더는 이후 메노나이트 연합 성경 신학교(Associated Mennonite Biblical Seminaries)에서 가르쳤고 이어 1977년부터 노틀담(Notre Dame) 대학으로 옮겨 그곳에서 줄곧 가르쳤다. 그는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증거」(1964) 등을 필두로 10여 권의 저서와 “라인홀드 니버와 기독교

교 평화주의”(1955)를 시작으로 백여 편의 논문을 남겼다. 그는 타계할 때까지 부지런히 메노나이트 비전을 학문적으로 설득력 있게 개진하고 다른 신학전통의 학자들과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미국과 세계 신학계에 그 비전을 공유하고자 했다.

요더는 철저히 메노나이트 교회의 아들이었지만 메노나이트 전통에만 갇힌 신학자는 아니었다. 그는 미국복음주의협의회(NAE)에서부터 미국교회협의회(NCC)와 세계교회협의회(WCC)에 걸쳐 교파와 신학의 담을 넘어 폭넓게 활동했고 다양한 전통의 신학교와 대학들에서 가르쳤다. 그는 신약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수가 들여온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곳 이든 마다하지 않고 가서 전한 신학자였다. 그의 이러한 열정과 소명은 심지어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 니콜라스 윌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리차드 마우(Richard J. Mouw)와 같은 학자들과 교회에게까지도 미쳐 그들로부터 우호적 반향을 얻기까지 했다.

요더는 그동안 잘못 이해되어온 메노나이트 교회의 신학, 신앙, 비전이 결코 분파적이지도 또는 탈세상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 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의 그 방식이었음을 열정적으로 아울러 세련된 논리와 학문성으로 변호해왔다. 제자도, 비저항, 비폭력, 평화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메노나이트 삶의 방식이 어떤 특정한 문화, 민족, 또는 신학전통에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비전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라면 오늘도 이 비전과 윤리는 여전히 규범적이고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요더는 이 주장을 신약성경 해석과 석의를 통해 신약학계와 윤리학계에 용감하게 내 놓고 변호했다. 1972년에 출판된 『예수의 정치학』이 바로 그 결과이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 유효한 윤리적 모델과 규범

요더는 콘스탄틴 대제 이후 로마 카톨릭이든 개신교회이든, 진보 신학이든 보수신학이든 동일하게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위한 유효한 모델이요 규범 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현 세상의 철학과 문화로부터 기독교인의 윤리를 위한 근거를 빌어왔음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교회는 이른바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 제자들 공동체의 비전과 윤리를 잃어버리고 이른바 에른스트 트뢰츨러가 말한 “교회 유형”(church-type)으로 동화되어가면서 세상의 문화를 긍정하고 받아들임으로 교회다운 독특한 성격과 차별됨을 스스로 포기함으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요더에게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셨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드러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도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한 윤리적 규범이요 원리라는 것이다.

요더에 따르면 예수는 처음으로 회당에서 설교하시며 자신은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 이사가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 스스로를 동일시 하시면서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들여왔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의 백성을 모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분이였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과 그 백성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과 집권자들의 그것과는 현저히 달랐다. 예수는 결코 집권자들처럼 폭력적 방법으로 역사의 방향과 흐름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하지 않았다. 예수는 강제력과 무력대신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평화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 예수는 칼을 버리고 평화의 길을 걸었고, 미움대신 사랑을 행했고, 양갓춤대신 용서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당신은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준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로 자신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과 눈그는 힘과 무력으로 판세를 엮으려하지 않고, 연약한 듯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예수의 이러한 삶은 놀랍게도 많은 호응자와 추종자들을 얻었고 실제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요더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차적인 관심을 결코 성공, 승리, 효율성, 힘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어린양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에 참여하면 되고 그 방법은 예수의 방식을 신실하게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요더는 강조한다. 이렇게 살면 종국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 끌어들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바로 평화주의를 견지하는 삶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요더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길은 폭력과 힘을 통한 조종의 방식이 아님을 힘주어 말하면서, 전쟁과 같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성 밖에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택해서는 안됨을 역설한다.

그런데 요더는 그리스도인이 평화주의를 취하는 것은 일반 평화주의와는 동기와 철학적 근거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톨스토이가 강조하듯 인류애 때문만도 아니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나 마하트마 간디가 주장하듯 그것의 탁월한 효과 때문도 아니다. 기독교인이 폭력을 버리는 것은 오로지 예수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고 그 방식이 예수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평화주의에 천착하는 이유는 철저히 기독교론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 평화주의는 “기독교 평화주의”(Christian Pacifism)요, ‘메시아적 평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요더에 따르면 예수의 사역과 삶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고 유대와 로마 집권자들에게 실제로 무시 못할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는 당시 집권자들에게 결코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형이라는 정치적 형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탈 사회윤리적인 개인 윤리적 성격의 것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해 온 19,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의 이해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요더는 주장한다.

요더는 예수의 삶의 방식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력한 듯하고 실패로 보이는 듯 하나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 예수의 방식이 옳음을 입증하는 사건이 되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끌어들이는 메시아적 방식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것이다. 요더는 십자가로 극적으로 대변되는 예수의 삶은 당시 사회에 큰 정치적 영향력을 미쳤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성이 있고 사회윤리적인 모델이 됨을 역설한다.

사회관과 사회변혁에 대한 입장

요더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걸으셨고 가르치신 그 삶의 방식과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간다고 설명한다. 이 공동체는 새로운 삶의 질서와 윤리를 가지고 존재하는 공동체 즉 기존 사회와는 현저히 다른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대안 사회이고, 이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행사된다는 것이다.

요더는 기존 사회의 질서와 정치가들의 정치와 그 산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신학적 입장 때문에, 비록 요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회에 아예 관심을 갖지 말 것을 권고하지는 않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또 어느 정도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요더는 국가가 그 자체로 악한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지만, 그는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의 삶과 복지를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는 거의 보지 않는다. 물론 요더는 국가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복지와 안녕을 단순히 보호해 주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기능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당위적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국가와 정부가 이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마 요더 자신이 타락한 창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구조의 기능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이 점에서 요더는 기존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열정과 관심보다는 오히려 교회와 같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들을 많이 만들어 기존 사회에 대한 대안 사회로 제시하여 그 영향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강조한다.

대안사회로서의 교회와 신실한 증거사역


물론 그가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는 소위 제도적인 교회 즉 콘스탄틴 이후의 시대 문화를 긍정하고 그 문화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타협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현재 트릴취가 말하는 소위 '교회 유형'(church type)에 속하는 제도적 교회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이다. 그것은 소위 제도적인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 교회 즉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닮아가려던 교회와는 아주 성격이 판이한 세상 문화와 타협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요더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친 새로운 질서, 즉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실제로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대안 문화, 대안 사회로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건설해야 하고 교회는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공동체 즉 메시아적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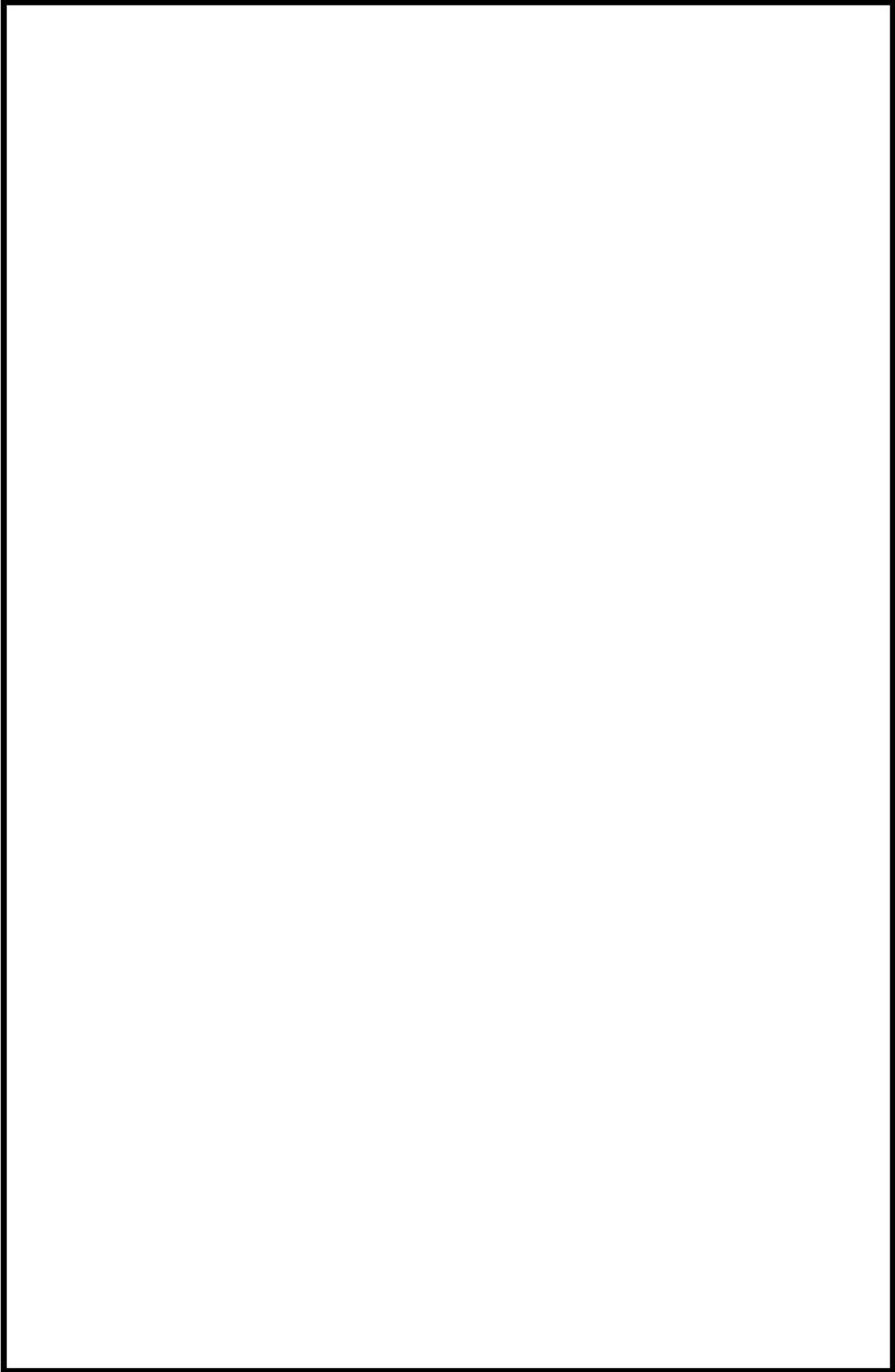
이런 메시아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가 걸어가신 그 방식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요더

의 사회윤리적 입장은 분명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과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심기 위해 그것을 이 사회에 강요하고 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변혁시키고자하는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하고 또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 이미 들여 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차적인 방식은 예수가 들여오시고 예수가 보여주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신실하고 따르고 그에 대해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 작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현하는 메시아적 공동체를 건설해서 실제적 조직체와 공동체로 만들어 이 사회에 보여주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인들의 증거가 비록 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종국적으로 완성해 갈 것임을 요더는 주장한다.

비판과 새로운 도전

미국 기독교 윤리학회 회장을 지낸 필립 위가만(J. Phillip Wogaman)이나 제임스 거스타프슨(James Gustafson)과 같은 학자들은 요더의 일관된 신학 작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요더의 입장은 명백히 분파적 신학의 회귀로 보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즉 이 세상과 사회에 관여하여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크게 가치를 두지 않고 새로운 사회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건설하고 확대해 가는데 강조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백히 사회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퇴각적 자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판에 대한 요더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요더는 이러한 비판은 철저히 교회의 문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한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고전적 유형론(typology)의 시각으로 자신을 이해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요더는 신학자와 교회들은 이와 같은 니버 유형의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기독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평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한다. 그는 메노나이트 비전과 이에 근거한 자신의 윤리적 입장이 현실 회피적이거나 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조성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날 뿐이라고 주장한다. 요더는 그의 작업을 통해 진정한 기독교 윤리는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다시금 윤리의 중심에 가져와야만 참다운 기독교다운(Christlike) 기독교 윤리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철저히 기독교론(Christology)에 근거해 있는 요더의 신학과 윤리학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실천론(Christopraxis)이다. 일생동안 요더는 다소 융감하게 보이는 과감한 신약성경 석의를 통해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오늘도 규범이 됨을 주류 개신교회와 신학계에 제시해 왔다. 『예수의 정치학』 초판 이후 약 20여 년 동안 많은 신약학자들이 그의 주장과 신약성경 석의에 대해 찬사 또는 비판을 쏟아냈다. 요더는 이것들을 차근차근 분석해서 책의 각 장의 마지막 부분들에 자신의 입장을 응답형식으로 붙여 1992년 개정판으로 출판했다. 본서가 바로 그것이다. 



강연 2

예수의 정치학
출판기념
강연회

권연경 교수
안양대 신학과

복음과 윤리

I. 요더와 함께

요더의 핵심 논지

역사적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규범으로서 현실적합성을 가진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정치적이다. 예수는 비폭력적 형태의 정치적 선택을 보여준다.

-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윤리적 규범성을 가진다.
-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앙의 근본인 예수

- “근본부터가 철저히 다른 새로운 삶의 질서를 지닌 새 공동체를 창조함으로써 기존 사회를 위협한 사람” (모범으로서의 예수)
- “십자가로 상징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윤리로 우리를 부르신 분”(규범으로서의 예수)

기독교적 삶

- “세상의 삶에 참여하면서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삶”
- 참여와 저항의 역동적 과정: “비폭력”이라는 자태로 드러나는 삶의 윤리

공동체

- “존재하는 모든 권력에 대한 불가피한 도전”
- “새로운 사회적 대안” (81쪽)

요더의 윤리학의 매력

참여와 저항의 결합은 성경적 체자도의 개념을 충실하게 재현한 사고

- 맛을 잃지 말아야 할 “소금”으로서의 제자들
- 세상에 노출되어 비추어야 할 “빛”으로서의 제자들
- “Resident Alien”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II.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물음

근본적 물음

- 구원의 복음과 순종의 윤리 사이의 긴장: “기독교 윤리가 직면한 가장 골치아픈 장애물”
 - * 기독교 복음은 본질적으로 “구원”의 복음
 - * 이 “구원”의 개념 속에 윤리/행위의 자리는?

통상적 해법

- “오직 믿음으로”와 “오직 은혜로”의 논리: 행위/윤리와 무관한 구원
- 직설법(indicative)과 명령법(imperative)
-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서의 “구원”과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윤리”
- 구원 자체는 믿음/은총의 산물로서 “행위”와 무관
- 기독교 윤리는 기본적으로 “구원, 그 이후”의 삶으로 파악됨
 - * 목적을 잃은 윤리: 구원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현재의 삶
 - * 추진력을 잃은 윤리: 에스컬레이터 위의 여행

구원과 윤리, 그리고 요더

-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 차원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포괄적 실재 속에서 이 정치적/윤리적 차원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 * 십자가를 향한 예수의 정치적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가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 실재 자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의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 바울이 선포한 칭의와 구원의 복음이 사회적 차원을 지닌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선포한 칭의/구원이라는 포괄적 개념 속에서 이러한 사회적 차원이 차지하는 자리는?
 - *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사회적 차원은 칭의/구원 자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사회적이어서 더 나아보이긴 하지만, 개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칭의/구원 자체에는 공헌하는 바가 없는, “구원, 그 이후”의 한 모습일 뿐인가?

복음으로서의 윤리

- 구원의 복음이라는 울타리 속의 윤리
- 윤리의 복음적/기독교적 토대

복음과 윤리: 바울신학적 관점 (첨부된 원고)

구원과 행위: 바울 이야기1)

신약의 가르침

구원과 행위의 관계는 모든 신자들의 항구적 관심사지만, 이 점에 있어 분명한 결론을 가진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치 않으며” 행위란 “구원 받은 신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후적인 열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구원은 철저히 은혜에만 기초하며, 행위는 구원의 결과일 뿐, 구원을 위한 사전적 조건일 수는 없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은혜 구원을 아무리 반복해도 성도들도 여전히 “고민” 투성이다. 왜 그럴까? 은혜를 수용하는 일이 그렇게 힘겨운가? 아니면 혹 우리가 말하는 은혜 구원이 어딘가 잘못 그려진 그림인가?

구원은 은혜일지 모르지만, 막상 우리는 행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 삶 자체가 행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으로 살아가며(cf. 롬 12:1), 따라서 우리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다. 구원이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과 무관하다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은혜구원론”은 우리의 삶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은혜구원론이 막연하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 현재가 무의미해야 미래가 보장된다는 생각이 과연 정확한 해답이 되는 것일까?

더 나아가 행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려움은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은혜의 화신인 바울조차 “제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경고를 반복한다(롬 2:6-11; 8:13, 17; 고전 6:9-11; 갈 5:21; 엡 5:5-6; 골 3:25). 바울을 벗어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종말론적) 칭의가 행위에 근거한다는 야고보의 선포는 너무 분명하다(약 2:24). 마태복음은 올바른 실천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한다.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하는 고백이 아니라 말씀의 실천이다. 심판을 건디는 지혜는 “들음”이 아니라 “실천”이다(7:21-27). 아무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지만, 합당한 예복, 곧 합당한 행실이 없는 사람은 추방당한다(21:11-14).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면 천국에 가지만,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떨어진다(25:31-46).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 역시 무섭기는 마찬가지다(마 6:14-15). 믿음이 심판을 면제해 주면 좋겠지만, 히브리서는 새 언약이 더 소중한 만큼 심판 역시 더 엄중해진다고 경고한다(10:26-31; 12:25). 신실한 인내 없이 종말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다. 성경은 분명 현재 우리의 삶, 곧 우리 행위가 “구원론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서신을 들이대며 “오직 은혜로” 혹은 “오직 믿음으로”를 외친다. 코메디의 표현을 빌어 표현하자면, 현재 우리는 행위의 구원론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사실 행위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위에서 몇 가지 예를 든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종말론적 구원이 올바른 행실을 필요로 한다고 단정한다. 우리는 이를 조건이라 부를 수도 있

1) 이 글은 Preaching (2007 5월호)에 기고했던 것이다.

고 열매라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사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행위는 요구된다. 물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행위에 앞선다. 하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술은 “이제 행위는 필요없다”는 말로 번역되지 않는다. 왕은 먼저 신하를 용서하지만, 그 왕은 또한 용서하지 않는 신하를 감옥에 던지는 분이기도 하다(마 18장). 은총이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하며, 은총 받은 우리들의 행위는 우리의 종말론적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인정한다면(약 2:20, 26), 행위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바울과 야고보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된 것일까? 분명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지 않은가? 바울은 분명 행위가 필요 없는 구원을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 야고보와는 전혀 다른 구원관을 피력하고 있는 것인가? 통상적인 해법은 야고보를 바울에게 맞추는 것이다. 참된 믿음이란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야고보서 역시 믿음에 의한 칭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 다른 옷을 입힌다. 야고보의 방정식에서 행위를 지울 수 없는 한, 야고보=바울이라는 등식은 결국 바울의 방정식 속에 행위를 포함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믿음 속에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와 같다. 물론 맞는 말이다. 바울 역시 (종말론적) 구원에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에 놀라는 이들이 많지만, 이런 놀라움은 오히려 성경에 대한 우리의 “편식” 습관을 드러낼 뿐이다.

오직 은혜로만?

많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은혜나 믿음은 “행위”의 반대말로 쓰인다. “은혜로”라고 말하건 “믿음으로”라고 말하건 실제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행위 없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구원을 행위와 나누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십자가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복음은 율법과 대조된다. 율법은 행위를 조건으로 달지만, 복음은 행위 없는 구원을 약속한다. 너무 단순한 요약이지만, 사실 이는 대부분 성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포착한다. 문제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실제 복음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

바울복음을 이해하는 첫 단추는 행위의 불가결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바울서신에서 종말론적 구원 혹은 영생은 모두 성령을 좇는 삶의 결과다. 사망이 죄의 마지막 결과이듯, 영생은 순종의 마지막 결과이다(롬 6:20-23).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육체에다 심으면 썩어짐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어야 영생을 수확한다(갈 6:7-9).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언제나 사망

이며, 우리의 영생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에 달려있다(롬 8:13). 바울의 복음의 요체는 구약의 행위심판이 은혜구원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지 않다.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심판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를 겨냥하며, 이 심판의 결과는 우리의 종말론적 운명을 결정한다(롬 2:6-11; 14:10-12; 고후 5:10; 딤후 4:14).

물론 부르심의 시작은 은총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는 죄인인 상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지만 이런 속죄와 은총의 부르심은 “계속 죄인으로 남아도 된다”는 면허도 심판으로부터의 면죄부도 아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말하고 싶겠지만, 또 이를 두고 견고한 믿음 혹은 구원의 확신이라 부르기도 싶겠지만, 바울은 이를 “착각”이라 부른다. 외모가 아니라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cf. 갈 6:7 상반절).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길은 없다. 구원을 향한 여정은, 기차여행이 아니라 거룩함의 트랙을 도는 달리기다.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갈 때에만 상,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전 9:24-25, 28; cf. 갈 5:7).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은 그저 해보는 말이 아니다(빌 2:12).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 사실인 만큼(빌 2:13), 우리가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 또한 사실이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결코 행위라는 “조건”을 없앴으로 무조건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 미래의 영광을 상속하겠지만, 여기에는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한글개역과는 달리 헬라어 원문은 조건문이다).

결정적 물음

구원이 행위를 요구한다면, 이를 복음이라 부를 수 있을까? 결국 “네가 열심히 해서 천국가라”는 말이라면, 이는 복음이라기보다 오히려 저주에 가깝지 않은가?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이 “복음”인 이유가 무엇일까? 행위에 대한 요구가 여전하다면, 도대체 바울은 왜 그토록 복음에 흥분하게 되었을까?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이 물음과 함께 드러난다.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러웠다. 한 마디로 그 이유는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었다(롬 1:16).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전 1:18, 24). 이 구원의 능력은 헬라의 지혜도 유대의 율법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능력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매달렸다(고전 2:1-5).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울의 선언은 은혜나 사랑 같은 단어들을 먼저 떠올리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 된다.

부활의 능력

뻔한 말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부활과 관련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요 생명의 주로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다(엡 1:20).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롬 1:4). 그리스도 사건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 혹은 “임명된”

것이 부활을 통해서라고 말한다(1:4). 그런데 자기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자신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복음임을 의미한다. 그가 역설하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바울의 선포도 우리들의 믿음도 모두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고전 15:14-17). 십자가를 말하기 전에 부활부터 외치고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십자가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부록 취급하는 우리의 복음 이해를 뒤집어 놓는다.

부활의 능력과 칭의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롬 1:17절. 원문에는 17절 앞에 “왜냐하면”이 붙어있다). “능력”이 부활에 근거한 개념이고, 하나님의 의, 곧 칭의가 이 능력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이는 곧 우리의 칭의가 애초부터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사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셨다(롬 4:25). 부활을 들어 칭의를 설명하는 바울의 움직임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편집증을 꼬집는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 칭의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

부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칭의가 부활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에, 칭의의 수단/방식인 믿음 역시 부활을 향한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바로 부활신앙이다. 아브라함은 믿어 의롭게 되었다. 그가 발휘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라의 죽은 몸을 살려 아들이 나게 하시리라는 믿음,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롬 4:17).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롬 4:22).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통한다. 우리 역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기” 때문이다(롬 4:24). 물론 부활신앙은 단순한 역사적 신앙을 넘어선다. 믿음과 세례는 하나됨을 의미한다.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그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롬 6). 물론 완전한 부활은 미래의 일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신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며,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게” 된다(롬 6:4).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이런 새로운 상황을 가리킨다. 부활 없이 칭의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우리의 칭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다(롬 4:25).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부활의 영


우리 삶에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은 다름 아닌 성령이다. 당연히 성령 역시 부활과 나누어질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부른다(롬 8:11). 이는 부활을 통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그리스도

의 영"이라고 불린다(롬 8:9). 우리가 부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긴다"는 말이다(롬 6:4와 7:6을 비교해 보라). 새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마른 뼈들이 부활하리라는 약속, 곧 "내 영을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겔 36:26-27; 37:1-14). 예수의 부활은 이 약속 성취의 유일한 기반이 되고, 예수의 부활은 믿음을 통해 우리 삶의 새로운 현실로 다가온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예수의 복음에서 발견한 구원의 열쇠였다. 우리는 부활의 영을 따라 살아가며, 그 인도를 받는다(롬 8:9, 14). 곧 부활의 영을 힘입어 "몸의 행실을 죽인다"(롬 8:13). 이렇게 하여 우리의 삶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롬 8:4), 이런 삶의 마지막 결과로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게 된다(롬 8:10-11, 13).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갈 5:5-6; 고후 5:5; 엡 1:14).

따라서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였다. 그럴듯한 인간의 수사 대신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다. 참된 복음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고, 진정한 믿음이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구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전 2:1-5; 갈 3:1-5, 14). 바울이 성도들의 삶에서 기대하는 것 역시 멋진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고전 4:19).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말로써가 아니라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고전 4:20. 6:9-10 및 15:50과 비교하라).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

구원 역사의 핵심 문제는 사람들의 죄악, 곧 불순종이었다. 슬프게도 할례와 율법은 이를 해결하기엔 너무나 "연약했다"(롬 8:2; 7장; 갈 4:9). 필요한 것은 순종을 가능케 하는 마음의 할례였고(신 10:16; 렘 4:4),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었다. 바울이 복음에서 발견한 해답이 바로 이것이었다. 바로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였다(롬 2:29).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의 토대가 있었다. 바울이 복음에 흥분한 것은 "이젠 순종 없이도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성령을 통한 새로운 삶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보다 골고다의 저녁이 더 편하고, 승리를 인한 감사보다 실패에 대한 고백이 더 자연스럽다. 하지만 은혜를 신뢰하는 것과 패배주의적 체념은 다르다. 바울의 삶이 드러내는 것처럼, 은총의 체험은 우리의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기도 하다(cf. 고전 15:10). 바로 이런 은총의 능력이 구원의 열쇠가 된다. 히브리서에서 예수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보다 더 나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구약 제사는 가짜고 예수의 제사가 진짜라는 논리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는 육체만을 씻어준 반면 예수의 제사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삶이 가능해 진 것이다(히 9:13-14).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에서 "산 소망"을 읽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다(벧전 1:3, 18).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 그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수술인 것 같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이 아닌가?) 

2) 바울서신의 행위와 구원 문제에 관해 보다 자세한 주석적 논의를 원하는 분은 필자의 『행위없는 구원? - 새롭게 읽는 바울의 복음』(서울: SFC, 2006)을 참고하기 바란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가 우리의 정북향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나침반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 화_ 02-794-6200

팩 스_ 02-790-8585

이 메 일_ cemk@hanmail.net

홈페이지_ www.cemk.org